

영어권 문학을 통한 한국 지역 문화와 현대사 이해

북미 독자층의 『해녀들의 섬』 수용 분석

최희영*

초록 본 연구는 2019년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리사 시(Lisa See)에 의해 집필된 『해녀들의 섬』(*The Island of Sea Women: A Novel*)을 북미 독자층이 어떤 텍스트로 수용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해녀들의 섬』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4·3평화공원을 개관한 2008년까지 제주를 배경으로 주인공 해녀 영숙과 미자의 우정과 상실, 국가폭력과 상흔을 생생하게 그려 낸 역사 소설이다. 이 중 제3장은 1947년부터 1950년까지의 제주4·3사건을 배경으로 국가 통제와 폭력에 의해 개인의 삶이 어떻게 굴절될 수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해녀들의 섬』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4·3사건 관련 문학 활동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단 작가인 리사 시가 혈통이나 문화적 배경 면에서 한국과 무관한 미국 백인 여성인 점에서 기존의 4·3문학과 다르다. 본 연구는 작가뿐만 아니라 북미 거주 비한국인이 중심 독자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편의 논평회에서 토론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북미 독자층의 『해녀들의 섬』을 향한 반응을 검토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어권 문학이 북미 대중들의 한국 지역 문화 및 현대사를 향한 관심과 이해를 촉진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제어 『해녀들의 섬』, 제주4·3사건, 4·3문학, 영어권 문학, 논평, 한국 지역 문화, 한국 현대사

* 노던일리노이대학교 역사학부 객원연구원

1. 서론

2019년 3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리사 시(Lisa See)가 제주 해녀를 주인공으로 한 『해녀들의 섬』(*The Island of Sea Women: A Novel*)¹을 출간하였다. 『해녀들의 섬』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제주4·3평화공원을 개관한 2008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제주 해녀인 주인공 영숙(Young-sook)과 미자(Mi-ja)의 우정과 상실 그리고 제주4·3사건(하단에서 4·3사건으로 약칭)의 국가폭력과 상흔을 생생하게 그려 낸 소설이다. 1938년부터 1975년까지 우정, 사랑, 공포, 원망, 용서로 이름 붙여진 5장으로 구성되며 2008년 미자의 증손녀인 클라라(Clara)가 영숙을 찾아와 미자의 녹음테이프를 전해 주며 둘 사이의 얽혀 있던 갈등을 풀어 주는 이야기로 진행된다. 각 장 사이에 영숙과 미자를 둘러싼 과거의 고통과 애환의 이야기를 배치하여 녹음테이프에 담긴 내용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엮어 낸 방식이다. 1975년부터 2008년 사이의 이야기는 공백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주인공들의 상실, 관계 단절과 함께 억압되고 은폐된 암흑의 역사적 시기를 암시한다.²

『해녀들의 섬』은 역사에 기반을 둔 소설이다. 영숙과 미자는 어린 시절의 첫 만남에서부터 첫 물질, 해외에서의 물질, 결혼과 출산, 항일운동 등 추억과 슬픔의 역사를 공유하는 이들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공포’(Fear)라는 제목이 붙여진 제3장은 1947년부터 1950년까지의 제주4·3사건을 배경으로 국가 통제와 폭력에 의해 개인의 삶이 어떻게 굴절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해녀들의 섬』이 주인공의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리사 시는 영숙과 미자를 비극적 운명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 갖고 책임을 감당해나가며 삶을 긍정해 나가는 인물들

1 Lisa See (2019), *The Island of Sea Women: A Novel*, New York: Scribner; 리사 시(2019), 이미선 역, 『해녀들의 섬』, 북레시피.

2 손영희(2021), 「리사 시의 『해녀들의 섬』에 나타나는 제주 4·3과 해녀들의 실존」, 『새한 영어영문학』 63(4), 새한영어영문학회, p. 38.

로 그려 나가고 있다. 4·3사건이라는 무시무시한 대량학살이 벌어진 장소였지만 현재는 평화의 섬으로 표상되는 아이러니한 제주의 역사 속 두 여인을 배치하여 ‘이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로써 과거의 비극으로부터 탈출하여 밝은 미래로 전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³

『해녀들의 섬』 집필은 최근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4·3사건 관련 문학 활동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단 혈통이나 문화적 배경 면에서 한국과 무관한 미국 백인 여성 작가에 의해 쓰여진 점에서 기존 4·3문학과 구별된다.⁴ 자연스럽게 북미 거주 비한국인이 중심 독자층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필자는 몇 가지 질문을 품게 되었다. 백인 작가 리사시가 제주의 문화와 역사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경로로 내용을 조직하게 되었을까? 실제로 북미 독자층이 주목한 제주, 제주도민 이미지 혹은 그와 관련된 줄거리는 무엇일까? 그들은 『해녀들의 섬』을 통해 얼마만큼 4·3사건을 인식하게 되었을까? 『해녀들의 섬』은 비한국인에 쓰여진 첫 제주 역사 소설이니만큼 국내에서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에 반하여 『해녀들의 섬』을 다룬 연구는 손영희의 논문⁵ 정도에 그쳐 미흡한 실정이다. 손영희의 연구는 백인 여성 작가 관점에서 제주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야기 구성에 초점을 두어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공존을 강조한 『해녀들의 섬』의 특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북미 독자층의 반응을 살펴본 연구가 아니기에 실제로 『해녀들의 섬』이 북미 사

3 손영희(2021), p. 40.

4 대부분 한국 작가들, 특히 제주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 계보를 이어 가고 있다. 4·3사건을 형상화한 최초의 작품인 현기영의 『순이삼촌』(1978)을 시작으로 김석희의 『땅울림』(1988), 『고여 있는 불』(1989) 등이 있다. 해외 동포 작가들의 작품도 눈에 띈다. 제주 출신의 일본계 한인 작가 제주 출신 재일동포 작가인 김석범의 『화산도』(1987), 『까마귀의 죽음』(1988)과 함께 한국계 미국 혼혈 작가 매리 린 브라트(Mary Lynn Bracht)의 『하얀 국화』(White Chrysanthemum, 2018) 등이 그 예이다. 다만 『해녀들의 섬』은 한국과 혈통이나 문화적 배경 면에서 무관한 미국 백인 여성 작가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에서 이전 4·3문학과 다르다.

5 손영희(2021), pp. 37-55.

회 내에서 어떠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편의 논평회에서 토론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북미 독자층의 『해녀들의 섬』을 향한 반응을 밝혀 영어권 문학이 제주 해녀와 같은 한국 지역 문화 및 4·3사건과 같은 한국현대사를 향한 관심과 이해를 촉진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됨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문학지리학의 예시: 리사 시의 『해녀들의 섬』

제주 여성들이 겪은 역사를 다룬 소설이라는 점에서 『해녀들의 섬』은 ‘문학지리학’⁶ 담론을 적용시켜 연구할 무궁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문학지리학은 지리학을 이용하여 문학작품을 다른 시각에서 고찰함으로써 ‘장소감’(sense of place)이 어떻게 작품에 내포되어 있는지 발견하는 학문이다. 이때 장소감은 무의식적 장소감과 의식적 장소감으로 나뉘는데 무의식적 장소감이 ‘장소 그대로의 순수한 감정’이라면 의식적 장소감은 기쁨, 공포, 경이, 놀람 등을 전달하여 읽는 이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감정이다.⁷ 다시 말하면 장소감이란 독자가 작품을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공간이 경험하는 공간으로 변할 때 그곳에 대하여 느끼는 구체적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리학과 문학을 융합한 연구 방법론은 특정 공간에서 습득한 삶의 인식과 감수성을 발현하는 인간의 잠재력과 창조력이 중시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특정한 지리적 환경 안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의식작용이 어

6 문학지리학 연구의 예로는 이강은(1988), 「빨치산의 문학적 형상화」, 『실천문학』 12, 실천문학사, pp. 443-451; 이은숙(1992), 「문학지리학 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4,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 147-166; 심승희(2001),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1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 67-84 등 참조.

7 이푸 투안(1995), 정영철 역, 『공간과 장소』, 태림출판사, pp. 7-8; 에드워드 렐프(2005),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현, pp. 150-151.

떻게 창조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그 여부에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 초기 문학지리학이 경관 해설이나 지리학적 현상을 담은 문학작품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점차 문학작품이 어떻게 독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나 경관을 인지하고 다양한 의미를 제공하는 자료로 해석되는지 탐색하는 작업을 포함하게 되었다.⁸ 소설은 줄거리가 구성되는 배경을 통해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며 그 배경 속에 묘사되는 역사적 사건, 문화적 현상, 사회적 쟁점 등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요즘과 같이 영상문화가 일상 삶에 잠식해 있기 이전, 대중에게 특정 지역에 관한 정보나 이미지를 체득할 수 있게 해 주는 매체는 문학작품이었다.⁹ 이러한 문학작품과 그 지리적 공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리학계에서는 문학 공간의 실용성, 상품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주제가 제시되었고, 21세기 들어 문학 공간의 장소 마케팅 활용, 문학 지리의 DB작업 및 GIS 활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의 주제로 문학지리학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한편 국문학계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지역문학사, 기행문학의 여행체험, 조선통신사 사행록에 그려진 문학 공간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심상 지리, 도시 및 장소의 표상, 문학 공간의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활용 등으로 주제를 넓혀 오고 있다.¹⁰

문학지리학은 문학작품이 서술하는 공간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시에 작가가 강조한 지역의 특성을 배우는 소재로 활용한다. 소설 속 공간 이미지는 작가가 정서적으로 그려 낸 것이기에 연구에서 개인의 주관적 체험도 중요하게 다룬다. 여기에서 주지할 점은 특정 공간 이미지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즉 독자들의 수만큼 존재하며 이런 독자 개인의 개별적 이

8 이은숙(1992), p. 149; 오양호(2012), 「인천학(仁川學)의 ‘문학지리학’적 접근」, 『인천학연구』 17,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p. 233-234.

9 오양호(2013), 「문학 속의 인천 심상, 그 문학지리학적 접근(2)」, 『인천학연구』 1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p. 159-160.

10 문학지리학 성과와 연구방법에 관하여는 권혁래(2022), 『문학지리학의 이론과 해석: 문학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서강대학교출판부 참조.

미지가 누적되다 보면 그 공간 이미지가 정형화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 공간에 관련된 사실과 상상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합의에 이르러 특정 이미지를 공유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¹¹ 이러한 현상을 문학지리학에서 ‘장소신화’(place myth)라 부른다.¹² 요컨대 문학지리학은 문학이 사회과학계 연구서 이상의 ‘특별한 우월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문학에 묘사된 주관적인 인식공간이 구체적 의미를 내포하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목한다.¹³ 작가는 특정 장소나 지역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나 이미지, 장소감 등을 담아내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첨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 대한 작가의 경험, 상상, 의식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은 문학연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사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¹⁴

그렇다면 제주라는 공간을 밟아 본 적 없는 북미 독자층은 『해녀들의 섬』 읽기라는 간접경험을 통해서 제주라는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상상하고, 의식하게 되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해녀들의 섬』을 읽고 제주 지역 문화 혹은 4·3사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을 얼마만큼 인지하게 되었을까? 필자는 논평회 분석을 통해 『해녀들의 섬』 독서를 통한 북미 독자층의 제주 문화 및 한국사 경험, 상상, 의식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기존 문학지리학 접근법과 달리 독자들의 문학작품 수용에 주목하여 『해녀들의 섬』을 통해 북미 독자층이 새롭게 인식하게 된 제주 이미지를 아래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룬다.

11 롤랑 바르트(1995), 정현 역, 『신화론』, 현대미학사, p. 237.

12 오양호는 장소신화의 예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과 강원도 평창, 정지용의 「항수」와 옥천,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별교, 춘향전과 남원의 상관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오양호(2013), p. 161 참조.

13 오양호(2013), p. 161.

14 오양호(2013), pp. 162-163.

3. 『해녀들의 섬』 논평회에서의 토론 주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총 12편의 논평회는 크게 네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저자와의 1대 1일 토론으로 진행된 논평회, 두 번째는 저자와 다수의 관객이 참여하여 저자의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질문-응답 시간이 배정된 논평회, 세 번째는 저자 없이 2인 이상의 토론자로 구성된 북클럽 형식의 논평회, 마지막으로 1인 토론자가 책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는 형식의 논평회이다. 날짜순으로 각 논평회에서 다루어진 담론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열거한 논평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담론은 크게 네 주제로 간추려진다. 첫 번째로 저자 정보 및 집필 동기, 두 번째로 제주도 및 제주

[표 1] 『해녀들의 섬』 관련 논평회 토론 유형과 주요 담론

날짜	주최, 제목	토론 유형-참여자	담론
2019. 3.22.	The Poisoned Pen Bookstore, “Lisa See discusses <i>The Island of Sea Women</i> ”	프리젠테이션과 질 의응답-Scottsdale, Arizona 지역 주민	집필 동기 제주도 및 제주 해녀들에 관한 정보 집필 과정 『해녀들의 섬』 줄거리
2019. 4.23.	Michelle Cronauer, “Author Interview, Lisa See, <i>The Island of Sea Women</i> ”	저자와의 1대1 토론- Michelle Cronauer (평론가)	제주도 및 제주 해녀들에 관한 정보 『해녀들의 섬』 줄거리
2019. 10.24.	Retrieving Books, “Bookish Speed Dating #1, <i>The Island of Sea Women</i> by Lisa See”	1인 평론- Christine(평론가)	『해녀들의 섬』 줄거리 『해녀들의 섬』의 개인적 평가
2020. 4.1.	The Book Report Network, “Lisa See: <i>The Island of Sea Women</i> - Author Interview”	저자와의 1대1 토론- Carol Fitzgerald (평론가)	저자 정보 집필 동기 제주도 및 제주 해녀들에 관한 정보 집필 과정 『해녀들의 섬』 줄거리

[표 1] 『해녀들의 섬』 관련 논평회 토론 유형과 주요 담론(계속)

날짜	주최, 제목	토론 유형-참여자	담론
2020. 7.16.	The Official Bay Area Book Festival Video Channel, "Sue Monk Kidd, Lisa See, Aimee Phan: Braving Deep Waters: Female Fearlessness & Friendship"	저자와의 1대1 토론: Aimee Phan(작가)	집필 과정 『해녀들의 섬』 줄거리 독자들과의 질의응답
2020. 11.6.	Winnipeg Public Library, "Time to Read: <i>The Island of Sea Women</i> by Lisa See"	2인 이상 토론: (지역 도서관 관장 들)	저자 정보 『해녀들의 섬』 줄거리 『해녀들의 섬』의 개인적 평가
2021. 1.25.	Los Angeles Times Events, "Explore ' <i>The Island of Sea Women</i> '"	저자와의 1대1 토론: Mary McNamara (인론인 겸 티비 쇼 프로그램 비평가)	저자 정보 집필 동기 집필 과정 『해녀들의 섬』 줄거리 독자들과의 질의응답
2021. 2.27.	PBS Michiana - WNIT, "Dinner and a Book: <i>The Island of Sea Women</i> "	2인 이상 토론: Gail Martin and Evie Kirkwood	제주도 및 제주 해녀들에 관한 정보 『해녀들의 섬』 줄거리
2021. 3.14.	forbookingoutloud, " <i>The Island of Sea Women</i> Book Review"	1인 평론: Liz(교사)	『해녀들의 섬』 줄거리 『해녀들의 섬』의 개인적 평가
2021. 3.30.	American Library in Paris, "Women & Process: Lisa See, author of ' <i>The Island of Sea Women</i> ', in conversation w/ Pauline Lemasson"	저자와의 1대1 토론: Pauline Lemasson	집필 과정
2021. 6.3.	Reading Cove Book Club podcast, "Book Review: <i>The Island of Sea Women</i> by Lisa See"	2인 이상 토론: Roberta, Monica and Millenia	제주도 및 제주 해녀들에 관한 정보 『해녀들의 섬』 줄거리 『해녀들의 섬』의 개인적 평가

[표 1] 『해녀들의 섬』 관련 논평회 토론 유형과 주요 담론(계속)

날짜	주최, 제목	토론 유형-참여자	담론
2021. 10.10.	UH Speaker Series, “ <i>The Island of Sea Women: LIVE</i> ”	저자와의 1대1 토론: Connie Hale (저자, 편집장, 언론 인)	저자 정보 집필 동기 제주도 및 제주 해녀들에 관한 정보 『해녀들의 섬』 줄거리 집필 과정

해녀들에 관한 정보, 세 번째로 집필 과정, 네 번째로 『해녀들의 섬』 줄거리에 관한 내용이다. 하단에서 주제별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저자 정보 및 집필 동기

논평회 참여자들은 한국과 혈통이나 문화면에서 관련이 없는 리사 시의 『해녀들의 섬』 집필 동기를 궁금해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리사 시는 그녀의 성장 배경을 다루었다. 그녀가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민자 혹은 소수 민족커뮤니티 문화에 관심을 지니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친가 쪽의 중국계 혈통을 물려받아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계 이민자 문화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전쟁, 경제, 정치사를 아우르며 역사의 선두에 있는 여성, 아이, 가족 관계에 각별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리사 시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진료차 병원 로비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잡지를 읽다가 기사에 나온 제주 해녀에 관한 기사문을 짚어 간직하면서 시작된 집필 동기는 거의 매 논평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집필 배경을 둘러싼 에피소드로 논평회는 매번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리사 시는 다른 저서 출간을 마치고 몇 년 뒤에야 본격적으로 기사를 파헤치고 해녀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해녀란 직업이 멸종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를 보존하고 알

리고자 소설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부분도 집필 동기와 배경을 설명할 때 포함 시켰다.

3.2. 제주 및 제주 해녀들에 관한 정보

리사 시는 해녀들의 오랜 전통과 함께 60피트까지 잠수하여 해저에서 장장 2, 3분 정도나 숨을 참으며 해산물을 캐는 일상 삶을 소개하였다. 또한, 해녀들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안 남편들은 집안일과 아기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면 또한 강조하고 있다. 해녀 일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해초나 낚시줄에 몸이나 머리카락이 감기거나, 뽀족한 바위에 몸이 상하거나, 상어로부터 공격받는 등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바람과 추위를 잘 견디는 이들 중 하나로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에는 겨우 4,000명 정도만이 남아 있으며 가장 어린 해녀가 55살이라는 점,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 해녀는 70, 80, 90대라는 점, 향후 15년 내 사라질 위험을 지닌 해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해녀가 “등에 관을 메고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이들”(every woman who enters the seat carries a coffin on her back in this world in the undersea world)이라는 리사 시의 표현은 해녀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해 주었다.

제주에 관하여는 여자, 바람, 돌이라는 3가지 특징을 지니는 섬으로 요약하였다. 특히 책의 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제주 여성에 관하여서는 제주 지역 내 여신이라는 말이 곧 할머니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며 1만 종의 여신 중에서도 이 할머니 여신이 최고로 여겨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녀가 제주에 가서 직접 만난 해녀로부터 받은 인상은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해녀들이 물, 바람, 추위 등에 강인한 점, 유머 감각을 지녔으며 남성을 상대로 놀리기 좋아하는 점, 자랑하기 좋아하는 점, 해저에서 일하면서 귀가 안 들리는 이들이 많아 목청이 상당히 큰 점 등이다.

무엇보다도 제주 해녀를 다루는 부분에서 리사 시는 제주 해녀들의 자유 선택(free choice) 혹은 자유 의지(free will)에 강조점을 두었다. 해녀들이 모두 일하는 여성(working women)의 표상이며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췌을 물려야 하는 ‘엄마’로서의 공통된 감정도 공유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제주도 여성의 독자적인 자의식(self-identity)은 리사 시가 해녀들의 삶 속에서 얻고자 한 가르침이었음을 언급하였다. 해녀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자유 선택과 자유 의지를 그녀의 이전 저서와 다른 점으로 꼽았다.

3.3. 집필 과정

리사 시가 직접 경험한 제주에서의 삶 공유는 아시아 땅의 섬을 간접 경험케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리사 시가 소개한 제주도 무당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논평회 참여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었다. 리사 시는 동양의 사머니즘이 유교와 달리 여성을 향한 존경심을 함축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좋은 여성이 좋은 엄마가 된다”(a good woman will become a good mother)라는 제주 무당의 인용구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리사 시가 직접 만난 제주 해녀에 관한 정보 공유는 리사 시가 참석한 논평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 미리 해녀와 약속을 잡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4명의 각기 다른 통역가가 인터뷰 작업에 참여하였다.¹⁵ 몇몇 경우에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의 긴 인터뷰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리사 시가 제주에 머물면서 우연히 길을 걷다 만난

15 가장 많은 역할을 맡은 통역사는 무당이나 해녀와의 면담 외에도 제주 지역 관청이나 박물관 관리자와의 면담을 통역해 주는 일을 담당하였고, 제주대학의 학생으로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해녀들과의 인터뷰 통역을 맡은 이도 있었다. 또 다른 통역관은 제주 출신 여성 중에는 처음으로 고등 교육을 받은 이로 이 여성의 어머니가 친일과 집안의 자제로 역사적 사건들을 겪었기에 리사 시와 어머니 사이에 통역을 담당하였다. UH Speaker Series, “The Island of Sea Women: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pt57yFeQnw>, 42:25~46:00 참고.

해녀와의 인터뷰로 진행되기도 했다. 리사 시는 따가운 햇볕과 거센 파도의 바람을 겪은 해녀들의 모습은 비록 그 피부 겉은 부드럽지 않았으나 무척 건강해 보였다고 전했다. 검은색으로 염색한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는 마치 미국의 1980년대 머리 모양을 연상시켰으며 입술과 눈썹 문신을 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점도 알려 주었다. 이러한 해녀들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자 청중들은 웃음으로 화답하며 마치 해녀들을 마주하는 듯한 친근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등에 메는 작은 쿠션을 육지로 나와 쉴 때 의자로 사용해서 앉는 풍경 등 사소한 동작들까지 해 가면서 해녀들의 삶을 아주 생동감 있게 설명하였다.

2019년 3월 22일 ‘포이즌드 펜 북스토어’(The Poisoned Pen Bookstore)라는 아리조나 지역 서점에서 개최된 논평회에서는 4명의 해녀와의 만남을 열거하였다. 이들이 이야기 속 인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나 4명의 해녀가 책 속 인물이나 줄거리를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84세의 김문선(Kim Munson) 할머니는 발목을 다쳐서 더 이상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고 육지에서 해조를 만지는 일만 하였는데, 그녀가 부끄러워한 몇 가지에 대해서 흥미롭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가령 거의 반만 옷을 걸친 채로 물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봤던 점이나 20세에 결혼한 이력에 대해 할머니 스스로 너무 늙은 나이에 결혼했다고 표현한 점이였다. 또 다른 82세 해녀는 자신을 최고의 해녀라고 너무나 큰 소리로 소개하여 리사 시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해녀들이 물속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청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음을 더하였다. 또 다른 82세 해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곁들였다. 그녀는 집이 너무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해녀 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해서 임신했을 때 물속에 떠 있는 느낌이 너무 좋았을 정도로 물질에 애정을 지니게 되었다. 해녀들은 하나같이 물속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를 원했고 그것도 아니면 배에서 출산한 후 이틀 만에 바로 다시 바다에 나와 작업 전선에 뛰

어 들기를 원했다. 이러한 리사 시가 공유한 인터뷰 내용은 모두 『해녀들의 섬』에 삽입된 내용이다.

한편 리사 시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난 82세의 한 해녀는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돌집에 살았는데 다른 해녀들과 달리 자랑하거나 쾌활한 기질이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리사 시가 전달한 이 수줍은 해녀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 해녀가 17살 되던 해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살림에 필요한 자재와 뿔감을 모으는 일을 했으며, 9명의 딸을 낳고 나서야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자녀들을 몹시 사랑스러워했으나 남편에 관해서만큼은 만족하지 못했다. 마지막은 83세 해녀로 일제강점기 친일파 부모를 두었던 그녀는 배고픔을 느껴 본 적이 없이 풍족한 삶을 누렸다고 전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자가용을 소유했을 정도였다. 이 해녀에 관하여 해방 이후 삶을 자세히 논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해녀들의 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자 부모나 남편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과 이들의 4·3사건 연루 배경을 시사하는 사례임을 짐작할 수 있다.

2021년 1월 25일 LA 타임스 주최 논평회에서도 리사 시는 상기한 인터뷰 사례를 소개하며 해녀들이 문자를 쓰고 읽을 줄 몰라서 자서전을 남기지 않았기에 인터뷰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었음을 확인시켰다. 2021년 10월 10일 ‘하와이 북앤뮤직 페스티벌’(Hawai'i Book and Music Festival) 논평회에서도 해녀들과의 인터뷰가 매 장의 줄거리를 설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제주 방문 전 여러 제주 관련 연구물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여 해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더하였다. 2020년 7월 16일 논평회를 통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녀들이 물질할 때 부르는 노래를 연구한 한 연구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3.4. 『해녀들의 섬』 줄거리

리사 시가 참여한 논평회의 경우 작가가 줄거리를 소개하는 시간이 배

정되었다. 그녀가 요약한 『해녀들의 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제주 여성과 이들의 엄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된다. 첫 번째 인물은 영숙으로 그녀의 엄마는 해녀 조직의 장이다. 영숙은 당연히 엄마를 따라 해녀의 삶을 살아갈 것으로 긍정적 낙인이 찍혀져 있었다. 다음은 미자다. 미자는 영숙과 달리 친일파의 딸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 있었다. 요컨대 『해녀들의 섬』은 영숙과 미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특히 엄마와 자식), 이웃과 별어지는 관계를 기본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리사 시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다룬 『해녀들의 섬』 주제를 ‘용서’로 정리하였다. 친구 간, 이웃 간, 가족, 국가 간의 용서를 다룬 이 소설을 통해 리사 시는 ‘평화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의 숨겨진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자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영숙과 미자를 둘러싼 관계 설정에 관하여 리사 시는 보통 글을 쓰기 시작할 때에 3가지를 생각하는데 먼저 성장 배경, 배경에 얽힌 감정, 감정을 만드는 관계들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plant red beans raise red beans)라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여 『해녀들의 섬』이 영숙과 미자의 이마에 새겨진 긍정적·부정적 낙인이 후세대까지 이어지는 숙명을 다룬 이야기라고 정의하였다.

4. 제주문화이해 텍스트로서의 『해녀들의 섬』 수용

북미 독자층이 『해녀들의 섬』에서 특별히 주목하여 얻어 가고자 한 정보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관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작가-토론자 혹은 작가-청중 간 질의응답 시간에 다루어진 내용은 대체로 제주라는 이색적 공간과 해녀들의 흥미로운 삶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즉 제주문화이해 텍스트로서의 『해녀들의 섬』 수용을 시사하는 일반 청중들의 질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해녀들의 조직 관계와 조직의 장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 여성 이야기를 다룬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 실제로 해녀들과 같이 잠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해녀들이 일반 여성과 다른 신체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밝힌 과학적 연구가 있나요?
- 『해녀들의 섬』을 읽은 해녀들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 제주의 모계 중심 문화가 매우 특이한 문화라고 생각하나요?
- 제주 언어는 본토의 언어와 다른가요?

위의 질문들은 『해녀들의 섬』 배경인 제주, 해녀 혹은 한국인, 한국문화(음식, 의류, 결혼 등), 특히 일하는 여성의 표상으로서의 해녀들의 삶에 관한 대답으로 이어졌다. 평론회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제주 문화 관련 토론을 북미 거주 백인 여성인 자신들의 삶과 비교하여 마무리 지었다. 제주 해녀와 자신들의 삶에 연결점을 찾는 과정에서 책의 매력을 찾은 면모가 엿보인다. 가령 2020년 11월 6일 ‘타임 투 리드’(Time To Read) 방송에서 한 도서관 관장인 백인 여성 토론자는 힘 있는 여성으로서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해녀들의 모습에 감명받았음을 공유했다. 그 외 여러 논평회에서도 독자들은 용서라는 주제에 얽힌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통해 독자 개인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게 되었음을 주지하였다.

한편 토론자들은 제주민들의 뇌리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혈연, 지역공동체 의식,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숙명 등이 자신들의 삶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생경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와이 북앤뮤직 페스티벌의 토론과 진행을 맡은 작가, 편집장이자 언론인인 코니 헤일(Connie Hale)은 한국의 결혼 및 장례 풍습, 가족 행사에서 즐기는 음식 등 전반적인 한국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표시하며 자신들과 다른 한국인들의 삶의 양식

을 확인하고자 했다.

무기명의 평론으로 독자층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해녀’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여성들의 삶을 잔잔하게 그려 내기를 기대한 독자들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6일 논평회에서 토론자들이 책 표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시간이 있었다. 이때 실제 책 내용과는 다소 상이한 파란빛 표지 속 쾌활한 분위기의 두 여성이 분명 일반 독자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유효하게 작용했을 거라는 추측에 동의했다. 전반적으로 『해녀들의 섬』이 북미 독자층에게 제주 지역 문화를 향한 관심과 이해를 촉진하는 텍스트로 수용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5. 4·3사건 이해 텍스트로서의 『해녀들의 섬』 수용

많은 문인들이 제주를 “해야 할 이야기,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가 많은 역사적 공간으로 인식하며 제주를 방문하고 있다.¹⁶ 리사 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숙 어머니를 중심으로 전개된 제주 해녀 항일투쟁을 다룬 2장에 이어 4·3사건을 배경으로 한 『해녀들의 섬』 3장이 이를 증명한다. 해당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친일협력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미자는 친일협력자로 일하고 있던 남편과 짝지어진다. 미자의 남편은 해방 후 제주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한 미군정 경찰과 이승만을 지지하는 우익단체에 편입하여 단독정부 수립 반대 세력들을 탄압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한편 영숙과 영숙의 가족들은 통일 조국을 주장하며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미군정에 대해 저항하는 시위에 참여하게 된다. 미자의 남편이 소속된 군병력은 제주민에 대한

16 강치영·권상철(2006),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 연구」, 『탐라문화』 2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p. 25.

[표 2] 『해녀들의 섬』 논평회 중 4·3사건 관련 토론

날짜	주최	4·3사건이 언급된 토론 주제
2019.3.22.	The Poisoned Pen Bookst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무당과의 인터뷰 • 줄거리 개괄 • 『해녀들의 섬』의 가치
2019.4.23.	Michelle Cronau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녀들의 섬』의 가치
2020.4.1.	The Book Report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거리 개괄 • 『해녀들의 섬』의 가치
2021.1.25.	Los Angeles Times Ev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 『해녀들의 섬』의 가치
2021.6.3.	Reading Cove Book Club podca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녀들의 섬』의 가치

무자비한 탄압에 박차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영숙은 남편과 아들, 시누이를 잃는다. 영숙은 비참한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며 바로 옆에 있던 미자가 미자 남편에게 요청하여 적어도 자기 아들만은 구해 줄 수 있던 상황에서 아무 대처도 하지 않았음에 분노한다. 이로써 어린 시절부터 친자매같이 지내던 영숙과 미자의 관계는 끊어지고 만다.

4·3사건 이해 텍스트로서의 『해녀들의 섬』 수용을 검토하기 위해 『해녀들의 섬』 논평회 중 4·3사건이 언급된 토론 주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4·3사건은 총 다섯 편의 논평회에서 언급되었다. 4·3사건이 거론된 토론 주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로 제주 무당 혹은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내용 소개에서, 두 번째로 줄거리 개괄에서, 세 번째로 현대사 텍스트로서의 『해녀들의 섬』 가치 논의 중에서도이다. 각 부분에서 다루어진 4·3사건 관련 토론 내용을 살펴보자.

5.1. 제주 무당 혹은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소개에서 언급된 4·3사건

리사 시는 제주 무당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당들이 해녀들을 위로하

기 위한 곳을 여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무당의 성장 배경에 관하여 그 부모가 4·3사건 중에 죽임을 당하여 고아로 자라온 인물임을 주지하였다. 굿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4·3사건과 관련하여 지독히 안 좋은 경험을 당한 무당은 마치 영혼이 육체로부터 빠져나가는 듯한 소위 ‘영혼의 상실’(soul loss)을 경험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실된 영혼을 되찾는 과정이 무당의 임무임을 밝혔다. 리사 시는 또한 제주서 만난 한 중년 시인의 증언을 인용하여 4·3사건 동안 12살 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주 지역 남성이 학살당했으며 이를 직접 지켜본 이들은 모두 영혼의 상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전했다.¹⁷ 이어서 시인이 서술한 제주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제주를 떠올리면 아름다운 풍경이 떠오른다. 물론 제주는 무척이나 아름답다. 마치 아시아의 하와이 같다. 많은 신혼부부가 제주로 허니문 여행을 간다. 만약 주말에 골프를 즐겨 보는 이가 있다면 분명 제주에서 열린 경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제주는 풍요로운 자연경관의 상징이지만 눈을 감을 때면 어두운 장면만이 스쳐 지나간다.¹⁸

리사 시는 이러한 ‘암흑’의 제주 이미지 중심에 4·3사건이 놓여 있으며 인터뷰에 응했던 해녀들이 보통 80대 후반에서 90대 후반으로 일제강점

17 The Poisoned Pen Bookstore, “Lisa See discusses *The Island of Sea Women*,” <https://www.youtube.com/watch?v=pu8t9EIh4KM>, 11:18~12:00 참조.

18 위의 자료, 12:58~13:07.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en I think about Jeju I think about the beautiful scenery and it is a really beautiful place. It’s considered to be the Hawaii of Asians. Honeymooners to there, I’m sure if any of you men here watch golf on the weekends, believe me, you’ve seen tournaments that are there. ... When I think of Jeju, I think of this beautiful scenery, and I close my eyes, all I can see is dark moments.”

과 4·3사건을 직접 겪었음을 강조했다. 해녀와의 인터뷰 내용 소개에서는 4·3사건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당, 시인 등 다른 직업군에 속한 지역민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는 중에 4·3사건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이 해방 직후 제주의 암흑 역사에 개입되어 있으며¹⁹ 제주민을 상대로 무시무시한 폭력이 자행되었음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

5.2. 줄거리 개괄에서 언급된 4·3사건

리사 시는 제주 역사를 향한 논평회 참여자들의 호기심에 대해 먼저 제주가 지형상 여러 국가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의 주요 거점 지역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제주와 관련된 한국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며 일제강점기, 4·3사건, 그리고 이후 남북으로 갈린 한반도 역사에 관한 배경적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그녀가 2019년 3월 22일 논평회에서 소개한 제주 및 한반도 역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제주가 원나라에 귀속되었을 때에 말을 기르는 지역으로 유명했다.
- 1910년 일제가 한반도를 무력에 의해 식민지로 삼았다.
- 세계 2차대전 종전 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었다.
- 미국은 남한을 민주주의의 국가로 지켜 내고자 고군분투하였다.

리사 시는 4·3사건에 관하여 “우리 미국”(We, the United States)은 한국을 민주주의의 국가로 지켜 내는 것을 우선시하여 남한만의 선거로 인해 미국이 옹호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독재자로 변하자 한반도 안팎에서 독재적 정권에 반

19 『해녀들의 섬』에서는 미 당국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하지는 않았으나 극우파와 결합한 남한 정부의 제주민 폭력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Lisa See (2019), p. 213 참조.

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제주에서는 남북통일이 아닌 남한만의 정부수립에 반대하는 시위가 펼쳐졌고 이를 진압하기 위한 대대적 학살(massacre)이 4월 3일 일어났다고 서술하였다. 이후 8여 년 동안 약 3만 명에서 8만 명의 제주 주민이 학살되었고 많은 이들이 학살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으며 이 중 약 4만여 명은 일본으로까지 이주하게 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이어 전 제주 지역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마을이 황폐케 되었다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4·3사건의 전개와 구체적 피해 규모를 듣는 청중들은 술렁이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와 제주민을 향한 연민의 감정을 표현했다. 더욱이 사건이 종료된 후 50년 동안 제주 주민이 식사준비 자리 등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이 사건에 대해 논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는 설명은 청중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아쉽게도 일반 대중들이 가장 많이 참석한 2019년 3월 22일 논평회의 경우 4·3사건 전개과정에 관한 자세한 토론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4·3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새로운 가족과 이웃을 이루게 된 영숙과 미자에 관하여 토론할 때에도 그저 대학살이 있었다고 서술한 정도에 그쳐,²⁰ 사건의 전개과정을 깊이 이해하고자 한 의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서적이거나 연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북클럽식 논평회 혹은 일대일 논평회에서는 일본, 남한, 북한, 미국의 관계가 복잡하게 설킨 해방 후 제주 분위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한 면모가 돋보였다. 논평 참여자들은 제주민들이 4·3사건이라는 비극적 참상과 정치 노선에 따른 치열한 압박과 폭력을 무릅쓰고도 여전히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었음을 명시하였다. 나아가 2021년 3월 14일 평론회에서 여교사 백인 여성 리즈(Liz)는 자신이 4·3사건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소설을 읽을 때 줄거리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많았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20 PBS Michiana-WNIT, "Dinner and a Book: *The Island of Sea Women*," <https://www.youtube.com/watch?v=vGDh-3aFTnc>, 20:37.

다. 언론인이자 TV 쇼프로그램 비평가인 메리 맥나마라(Mary McNamara) 또한 직접적으로 '4·3사건'이라는 명칭을 호명하고는 있지 않으나 리사 시가 어떻게 이 참혹하고 서술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게 되었는지 궁금증과 관심을 표했다. 기본 지식 배경이나 전문성에 따라 『해녀들의 섬』을 통한 4·3사건을 향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는 달랐다. 그러나 독자 대부분이 적어도 『해녀들의 섬』의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미국 정부가 개입된 4·3사건 존재를 인식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5.3. 『해녀들의 섬』 가치 논의에서 언급된 4·3사건

논평회 참여자들은 북미에서 역사 교육이 서양(eurocentric)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그러하다고 지적하였다. 책, 영화, 텔레비전 쇼가 하나같이 유럽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에서 펼쳐지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많은 토론자가 근현대 역사 속 한국을 미국의 도움을 받아 공산주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한 후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로 인지할 뿐이며, 심지어 한국이 일본 식민 통치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고 진술하였다. 논평회 참여자들이 대부분 동아시아 역사나 문화에 접촉할 기회가 상당히 적은 백인층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 주는 대목이다.

논평회 토론자들은 서양 중심의 역사 교육을 지적한 데에 이어서 『해녀들의 섬』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적 배경지식을 넓히는 데에 상당한 효용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특정 시점을 다룬 것이 아니라 전쟁 전후는 물론 현재까지 잔존하는 전쟁의 참상을 서술한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가령 리사 시는 제16회 하와이 북앤뮤직 페스티벌에서 『해녀들의 섬』이 상상의 이야기와 '역사적' 사건의 결합이라고 한 토론자의 강조점에 동의하였다. 논평자는 1938년부터 2018년의 제

주 여성 이야기를 담은 『해녀들의 섬』이 계획된 의도의 결과였음을 확인하며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맞이한 해방 직후 제주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상기한 역사적 개괄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외 다수의 논평회 참여자들은 『해녀들의 섬』이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지역민들의 일상 삶에 준 영향을 이해하게끔 도와주어 각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관심을 유도했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한 이는 『해녀들의 섬』을 읽으면서 해녀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물론 제주 역사 관련 영상매체를 스스로 찾아보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020년 11월 6일 논평회에서 도서관장인 한 백인 남성 토론자는 『해녀들의 섬』이 4·3사건 연구의 확장으로 이어질 잠재성을 지니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²¹

『해녀들의 섬』의 역사 이해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논하던 중 논평 참여자가 리사 시에게 4·3사건과 관련된 한국의 현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리사 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을 개관하며 800페이지에 달하는 4·3사건 피해자 규명 서류들을 직접 읽었다고 밝혔다. 몇몇 진술은 너무 끔찍하여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정도였다고 전했다. 4·3사건 피해자로서 지역 주민들 모두가 남편 혹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모두 모여서 슬픔을 나누었던 『해녀들의 섬』 장면이 실제 리사 시가 읽은 피해 규명 진술서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알렸다.

리사 시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리사 시의 저서로 북클럽에서 토론될 만한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²² 『해녀들의 섬』 토론 주제로는 “역사적 배경을 이루는 중일전쟁, 세계 2차대전, 한국전쟁, 4·3사건, 베트남전쟁이 각각 주인공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북클럽

21 Winnipeg Public Library, “Time to Read: *The Island of Sea Women* by Lisa See,” <https://www.youtube.com/watch?v=PnCCwvUsBiY>, 10:18~10:28. 긴 토론이 아닌 짧은 개인적 평가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언급된 내용이기엔 <표 2>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2 Lisa See, “Book Clubs,” <https://www.lisasee.com/about-lisa-see/book-clubs/>.

에서 작가가 제시한 토론 주제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된다는 점을 주지할 때에 『해녀들의 섬』에 서술된 한국사를 다시금 인식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에게 공개된 일부 논평회만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기에 비공개 소규모 북클럽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다만 서평²³과 온라인 서점 독자 리뷰란 글을 분석하여 『해녀들의 섬』을 통한 일반 독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변화를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해녀들의 섬』을 읽으면서 한국사에 관심이 생겼고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평을 남겼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세의 침입을 받은 제주 전쟁사에 특별한 관심을 지니게 되었으나 인간관계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 묘사에 치중한 리사 시의 이전 소설과는 달리 인물에 감정 이입이 어려웠다고 설명하였다. 온라인 서점에 기록된 익명의 독자 리뷰 중 『해녀들의 섬』을 “우울하게 만드는 책”(such a depressing book) 혹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책”(it does not anything good happen in there)으로 평가한 이들도 있었다.²⁴ *Los Angeles Times* 주최 논평회에서도 다수의 독자층이 잔인한 장면 묘사를 책의 특징으로 뽑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남긴 북미 독자층은 『해녀들의 섬』을 통해 제주 사람, 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배우게 된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4·3사건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역

23 Rahna Reiko Rizzuto (2019), “The Impact of War: Lisa See’s *The Sea Island of Women*,” <https://lareviewofbooks.org/article/the-impact-of-war-lisa-sees-the-sea-island-of-women/>; Tatjana Soli (2019), “Lisa See Sets a Coming-of-Age Story in the Tumultuous Seas of Occupied Korea,” <https://www.nytimes.com/2019/04/05/books/review/island-of-sea-women-lisa-see.html>; John Rogers (2019), “Review: *Island of Sea Women* pits friendship versus tragedy,” <https://apnews.com/article/friendships-diving-reviews-lisa-see-north-america-b877626f8cc8402ab12133899340f99d> 등 참조.

24 Amazon Customer Reviewers, “*The Island of Sea Women: A Novel* Customer Reviews,” <https://www.amazon.com/Island-Sea-Women-Novel/dp/1501154850#customerReviews> 참조.

사서로서의 『해녀들의 섬』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공산주의 척결이라는 명목하에 오로지 자유를 원했던 제주 지역민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아는 서양인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진술한 이도 있었다. 영숙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동시에 영숙과 미자의 관계를 끊어 버리게 한 4·3사건의 잔인한 장면 묘사는 읽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나 그것이 바로 제주의 역사이자 전쟁의 역사이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인식한 이들이 다수였다.

리사 시가 강조했듯이 4·3사건은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이다. 『해녀들의 섬』을 통해 북미 독자층은 해방 후 한국을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를 지켜 낸 ‘승리’의 나라가 아닌 4·3사건이라는 ‘비극’을 양산한 사건들로 얼룩져 있던 제주 역사가 존재한 나라로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현대사 이해 텍스트로서의 『해녀들의 섬』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

6. 맺음말

『해녀들의 섬』은 리사 시가 제주 사람, 사건, 지형, 지리에 영감을 받아 집필한 역사 소설로 50년간 숨겨져 왔던 비극적 사건의 공간인 제주가 어떻게 지금의 평화의 섬으로 변모하게 되었는지 그려 내고 있다. 리사 시는 제주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해녀들의 섬』의 마지막 구절을 가장 먼저 적었다고 전했다. 바로 “숨, 숨, 숨”(a breath, a breath, a breath)이라는 짧은 문구다. 오랫동안 숨을 참아가며 물속에서 해산물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해녀들의 신비스럽고도 흥미로운 존재를 각인시키는 동시에 4·3사건을 겪은 이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감정의 심오함”(emotional depth)을 각인시키고 있다.²⁵

25 Michelle Cronauer, “Author Interview, Lisa See, *The Island of Sea Women*,” <https://www>.

피해자 진실 규명 움직임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여러 문학작품을 통해서 소개되어 온 4·3사건은 『해녀들의 섬』에서 중요한 배경요소를 이룬다. 한국문화나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백인 여성 작가 리사 시가 4·3문학의 한 예로 볼 수 있는 『해녀들의 섬』을 집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녀의 장기간 연구와 국내 연구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존재한다. 미국과 한국 경계를 넘나들며 완성된 영어권 문학 『해녀들의 섬』은 분명 한국 지역 문화와 한국 현대사에 관한 관심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동양문화나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다수의 백인으로 구성된 북미 독자층은 『해녀들의 섬』을 통해 제주 지역 문화인 해녀와 4·3사건을 간접경험하고, 상상하고, 의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녀들의 섬』에는 미국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4·3사건에 연루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한 해석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전개에 중요한 거점지인 제주의 해방 전후 복잡한 정치 분쟁과 암울한 분위기를 알게 해 준다. 다수의 논평회 참여자들이 동의한 바와 같이 『해녀들의 섬』은 서양사 중심 역사 배우기의 시선을 돌려 동아시아 한국의 섬, 제주 여성들의 시선에서 전쟁을 바라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 토론자는 “리사 시 자신은 이토록 무겁고 어두운 역사적 사건을 알게 되고 책의 주제로 다루면서 어떠한 ‘내면의 경험’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책을 읽으면서 어떠한 ‘내면의 경험’을 하였는가?”로 독자에게 던져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층 인터뷰를 통한 본 질문의 답변 분석은 『해녀들의 섬』을 통한 제주의 장소신화 형성 가능성과 내용을 엿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필자의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며 본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 강치영·권상철(2006),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 연구」, 『탐라문화』 2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pp. 7-43.
- 권혁래(2022), 『문학지리학의 이론과 해석: 문학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서강대학교출판부.
- 바르트, 롤랑(1995), 정현 역, 『신화론』, 현대미학사.
- 손영희(2021), 「리사 시의 『해녀들의 섬』에 나타나는 제주 4·3과 해녀들의 실존」, 『새한 영어영문학』 63(4), 새한영어영문학회, pp. 37-55.
- 시, 리사 (2019), 이미선 역, 『해녀들의 섬』, 북레시피.
- 심승희(2001),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토마스 하디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3(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 67-84.
- 렐프, 에드워드(2005),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현.
- 오양호(2013), 「문학 속의 인천 심상, 그 문학지리학적 접근(2)」, 『인천학연구』 1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p. 155-192.
- 오양호(2012), 「인천학(仁川學)의 ‘문학지리학’적 접근」, 『인천학연구』 17,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p. 225-254.
- 이강은(1988), 「빨치산의 문학적 형상화」, 『실천문학』 12, 실천문학사.
- 이은숙(1992), 「문학지리학 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4,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 147-166.
- 투안, 이푸(1995), 정영철 역, 『공간과 장소』, 태림출판사.
- Sea, Lisa(2019), *The Island of Sea Women: A Novel*, New York: Scribner.
- Amazon Customer Reviewers, “*The Island of Sea Women* Customer Reviews,” <https://www.amazon.com/Island-Sea-Women-Novel/dp/1501154850#customerReviews> (접속일: 2022.6.1.)
- American Library in Paris (2021), “Women & Process: Lisa See, author of *The Island of Sea Women*, in conversation w/ Pauline Lemasson,” <https://www.youtube.com/watch?v=fvOwOOMqr14> (접속일: 2022.3.16.).
- forbookingoutloud (2021), “*The Island of Sea Women*: Book Review,” <https://www.youtube.com/watch?v=tXKhee2Yx2M> (접속일: 2022.3.15.).
- John Rogers (2019), “Review: ‘*The Island of Sea Women*’ Pits Friendship versus Tragedy,” <https://apnews.com/article/friendships-diving-reviews-lisa-see-north-america-b877626f8cc8402ab12133899340f99d> (접속일: 2022.8.10.).
- Lisa See, “Book Clubs,” <https://www.lisasee.com/about-lisa-see/book-clubs/> (접속일: 2022.8.10.).
- Los Angeles Times (2021), “Explore ‘*The Island of Sea Women*’,” <https://www.youtube.com/watch?v=rU2p-68gcGo> (접속일: 2022.3.2.).

- Michelle Cronauer (2019), "Author Interview, Lisa See, *The Island of Sea Women*," <https://www.youtube.com/watch?v=jFKS4sRxpFY> (접속일: 2022.2.4.).
- PBS Michiana (2021), "Dinner and a Book: *The Island of Sea Women*," <https://www.youtube.com/watch?v=vGDh-3aFTnc> (접속일: 2022.3.15.).
- Rahna Reiko Rizzuto (2019), "The Impact of War: Lisa See's *The Sea Island of Women*," <https://lareviewofbooks.org/article/the-impact-of-war-lisa-sees-the-sea-island-of-women/> (접속일: 2022.8.10.).
- Reading Cove Book Club (2021), "Book Review: *The Island of Sea Women* by Lisa See," <https://www.youtube.com/watch?v=-5tiJyhrU-A> (접속일: 2022.3.15.).
- Retrieving Books (2019), "Bookish Speed Dating #1, *The Island of Sea Women* by Lisa See," <https://www.youtube.com/watch?v=XeY9kGBF3B0> (접속일: 2022.2.4.).
- Tatjana Soli (2019), "Lisa See Sets a Coming-of-Age Story in the Tumultuous Seas of Occupied Korea," <https://www.nytimes.com/2019/04/05/books/review/island-of-sea-women-lisa-see.html> (접속일: 2022.8.10.).
- The Book Report Network (2020), "Lisa See: *The Island of Sea Women* - Author Interview," <https://www.youtube.com/watch?v=O8YvVWN3hlw> (접속일: 2022.2.5.).
- The Official Bay Area Book Festival (2020), "Sue Monk Kidd, Lisa See, Aimee Phan: Braving Deep Waters: Female Fearlessness & Friendship," <https://www.youtube.com/watch?v=7SdgN1Z1BUE> (접속일: 2022.2.10.).
- The Poisoned Pen Bookstore (2019), "Lisa See discusses *The Island of Sea Women*," <https://www.youtube.com/watch?v=pu8t9EIh4KM> (접속일: 2022.1.30.).
- UH Speaker Series (2021), "*The Island of Sea Women*: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pt57yFeQnw> (접속일: 2022.3.15.).
- Winnipeg Public Library (2020), "Time to Read: *The Island of Sea Women* by Lisa See," <https://www.youtube.com/watch?v=PnCCwvUsBiY> (접속일: 2022.3.1.).

원고 접수일: 2022년 7월 11일, 심사 완료일: 2022년 8월 3일,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9일

ABSTRACT

English Literature as a Tool for Understanding Korean Local Culture and Contemporary History

Choi, Heeyoung*

An Analysis of North American Readers'

Review of *The Island of Sea Women*

This study examines the response of North American readers of *The Island of Sea Women: A Novel*, written by the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Lisa See in 2019. *The Island of Sea Women* is about female friendship and devastating family secrets of two women named Young-sook and Mi-ja on the Jeju Island, located sou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historical novel covers the period from 1938, when Japan occupied Korea, to 2008, when Jeju 4·3 Peace Park was established. The third chapter, describing the chronological sequence of events related with the Jeju 4·3 Incident, reveals how one's personal life was affected by power and violence of the state. *The Island of Sea Women* is in line with 4·3 literature, which has been in the spotlight recently in the Korean literary world; however, it differs from other examples in that the author is neither Korean nor a person of Korean descent. This study, focusing on the fact that its targeted audiences are also

* Visiting Researcher, Department of History,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North Americans, investigates 12 book club discussion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English literature in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in Korean local culture and Korean contemporary history such as the Jeju 4·3 Incident.

Keywords *The Island of Sea Women*, Jeju 4·3 Incident, 4·3 Literature, English Literature, Book Discussion, Korean Local Culture, Korean Contemporary History

